

‘적당’으로는 자부심을 얻을 수 없다



최상홍 / 한일엠이씨 회장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정부로부터 매년 7월 16일을 ‘기계설비의 날’로 지정받은 물 론 지난 7월 15일 ‘제1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치르면서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 연합회는 기계설비분야의 당면과제 해결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단결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 난 1986년 설립되었다.

한일엠이씨 최상홍 회장은 총연합회 설립을 주도하였고 초대, 2대 회장까지 맡아서 기계설비업계의 단합과 발전 을 이끌었다. 기계설비업계에서 그는 “온 몸으로 실천하는 작은 거인”, “기술향상에 뜻을 둔 선각자이며 기술보국 에 앞장선 거보(巨寶)”, “위트 있는 분위기 메이커”, “원리원칙과 의로움을 중요시 하는 멋쟁이”, “철두철미한 메모 광”, “기계설비업계의 대부” 등으로 불리운다. 우리나라에 ‘기계설비’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1950년대, 척박한 환경의 기계설비에 입문하여 오늘날 최첨단 기계설비산업으로 거듭나기까지 최상홍 회장은 기계설비 발전을 이 끌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을 배출해냈다. 또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설비공학회, 냉동공 조산업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등 업계 및 학계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족적은 거대하다.

본지는 ‘최상홍 설비인생 50년 간행위원회’가 지난 2006년 발간한 「‘적당’으로는 자부심을 얻을 수 없다」 책을 통해 의리와 사랑으로 살아온 최상홍 회장의 기계설비 인생 60년을 더듬어 본다.[편집자 주]

◎ 약력

- 1935년 경북 선산군(현 구미시) 해평면 출생
- 195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 1963년 3월~1966년 4월 독일 STUTTGART시 공기조화설비 전문회사 LTG 근무
- 1966년 6월 한일기술연구소 설립
- 1967년 3월~1974년 4월 홍익대학교 이공대학 및 대학원 건축과 설비강사
- 1978년 1월~1986년 4월 교통부 관공속박시설 심사위원
- 1975년 1월~1986년 8월 (사)한국기술용역협회 이사
- 1987년 4월~1998년 5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감사
- 1981년~ 1989년 3월 (사)한국기술사회 이사, 정책위원회 위원장
- 1981년~1985년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 및 감사
- 1971년~1985년 (사)공기조화·냉동공학회 이사
- 1978년~1981년 (사)공기조화·냉동공학회 부회장
- 1986년 1월~1989년 12월 (사)공기조화·냉동공학회 회장 및 기계설비협의회 회장(초대, 2대)
- 1983년 4월~1985년 5월 건설부 중앙설계심사위원
- 1987년 1월 장한기술시스템 설립(1990년 장한기술(주)로 법인 전환)
- 1987년 12월~1993년 12월 건설부 중앙설계심사위원
- 1991년 12월~1993년 12월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회 위원회 위원
- 1989년 7월~1997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 위원(환기분야)
- 1991년 8월~1996년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 위원
- 1992년~2002년 한국설비기술협회 고문
- 1992년~2002년 대한설비공사협회(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고문
- 1992년 11월~1997년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1993년 2월~1997년 건설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 1996년 6월~2000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1998년 6월~1999년 5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부회장
- 1989년~2006년 한국엔지니어링 공제조합 감사
- 2000년~현재 한국공학한림원 명예회원
- 1991년~현재 (주)한일엠이씨 회장

◎ 후학 지원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최상훈 특지방학회
- (사)대한설비공학회 최상훈 인재상(학술상, 기술상, 신진교수상, 여성설비인상)

◎ 수상 및 포상

- 1985년 3월 모범납세자로 재무부장관 표창
- 1989년 3월 모범납세자로 재무부장관 표창
- 1989년 4월 은탑산업훈장 수훈
- 1998년 1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동문회 '자랑스런 동문' 상 수상
- 2001년 1월 대한설비공학회 30주년 기념 특별상 수상
- 2006년 1월 기계설비협의회(현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공로상 수상
- 2006년 12월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 선정
- 2010년 12월 대한민국 100대 기술과 그 주역으로 선정(공조설비 및 시스템 설계 기술)
- 2012년 5월 서울공대 발전공로상 수상

설비업계 역사를 지켜온 50년

내가 독일에서 돌아와 한일을 창립할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설비 관련 단체가 전무했다. 모두가 눈앞에 닥친 일을 헤쳐 나가느라 바빠서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었다. 그 상태에서 기술 확보는 물론 건설산업의 전문 분야로서 인정받는 일도 요원해 보였다.

일찌감치 대학교 3학년 때 설비를 전공 분야로 결정하면서 늘 아쉬웠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설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로 말미암아 설비 기술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었다. 인식 확산과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재들이 설비 분야에 진출하여 기술 발전을 이뤄내고 그것을 통해서 설비 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다. 그와 같은 판단 아래 시작한 것이 학회 창립이었다.

1971년 창립된 공기조화냉동공학회(현 대한설비공학회)는 출범부터 학계와 업계를 모두 포함한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것은 산학협동의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한설비공학회만큼 학계와 업계를 모두 아우르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학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처음부터 학계의 이론이 그대로 업계의 기술로 발전되고 업계의 경험이

학계의 이론을 수정하는 방식을 추구한 대한설비공학회는 산학협동의 모델이다. 이론과 경험, 기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한설비공학회가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이유이다. 대한설비공학회에는 대학과 연구소의 교수, 설비 담당 공무원, 시공업자, 제작자, 설비 설계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다. 나는 대한설비공학회 창립을 통해 산학 협동의 모델을 만들고 나아가 유사 연관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계설비협의회(현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그대로 기술발전을 통해 낮은 인식을 극복하고 설비업계 전체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1986년 '기계설비협의회'가 만들어졌다. 기계설비협의회는 학술 분야의 공조화냉동공학회(현 대한설비공학회), 제조 분야인 한국냉동공조협회(현 냉동공조산업협회), 시공 분야인 대한설비공사협회(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술 분야의 한국설비기술협회, 설계 분야의 한국설비엔지니어링협회의 등을 망라하고 여기에 학계, 연구원, 산업계, 기술사, 종합건설의 기계설비 전문 인력 중 추대된 인원이 참가하는 단체로 발족하였다. 나는 제1기와 제2기에 걸쳐 4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런 노력 한편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보다 많이 설비업계를 선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서울공대 기계공학과 동창회 활동을 통해 좋은 후배들이 설비업계를 선택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설비분야에 오는 사람이 적었다. 1967년, 68년 당시만 해도 에어컨, 공기조화, 냉동, 환기 등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다. 수세식 화장실도 공공기관 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학문과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나는 후배들에게 설비분야를 알리기 위해 서울대 출신의 친구들이란 뜻의 설우회(設友會)에서 처음으로 '서루회'라 명명하고 모임을 만들었다. 1976년 5월 3일 내가 발의하여 발기대회를 하고 7월에 창립총회를 가졌다. 나는 1984년부터 1996년까지 12년 동안 회장을 맡았다. 서루회 현재 회원은 100여명이고 매월 셋째 월요일에 기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한다. 서루회 초창기에는 기계공학과 출신 20여명이 전부였다. 그리고 가족까지 엔지니어 하우스 등에 모여 노래자랑이나 파티를 여는 등 친목모임 성격이 강했다. 이후 서루회는 친목모임 단계를 벗어나 1985년 경부터 한 달에 한번 모여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게 되었다. 학술모임으로 변모하면서 문호가 더욱 개방되었고 산학연을 망라하는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매달 한 번씩 개최되는 서루회 모임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기술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해외 정보수집은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의 접목을 통하여 산학연 협동 교류의 장으로 만들었다. 서루회는 대한설비공학회는 물론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기에 충분한 역할을 했다.

서루회는 설비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설비설계 자체가 하청 구조여서 부당한 요구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의식도 갖기 쉬운데 그런 것을 타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건축에는 독립적인 기술분야가 없는 플랜트를 주목하고 발전시켰으며 이후 한국플랜트학회 창립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학회와 전문 분야에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은 최상홍상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기금을 출연하여 제정된 이 상은 석박사 학

위 논문 중 우수논문을 심사하여 연말 총회에서 시상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자세와 참여만이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나아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모임이나 단체를 발전시킨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 평생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았다. 그 대신 내가 해야 할 일, 하려고 하는 일 이외에는 일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평가는 제각각 다르겠지만, 그런 자세 덕분에 전공 분야에서 나름대로 지금의 위치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한편 나는 영광스럽게도 한국공학한림원에도 몸담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학계, 연구소,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출되는 회원들의 모임이다. 심사가 엄격하고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정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65세가 넘으면 명예회원이 된다. 명예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 년에 한두 사람만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최고경영자협의회(정회원 중 엔지니어 출신 CEO들의 모임) 기계부분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사심 없이 한 행동이지만 주변에서는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동문회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상을 받은 사실이다.

대한설비공학회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1년 7월에는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그 이전에 학회 창립 10주년과 20주년에도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1990년에는 대한설비공사협회(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를,

2006년에는 기계설비협의회(현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도 있다. LG아트홀, 아셈 무역센터 확장 공사를 마친 뒤에는 미국 공조학회(ASHRAE)에서 수여하는 펠로우 기술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1989년 4월 제22회 과학의 날에는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한일과 같은 중소 규모의 기업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경우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1985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세의 날에 재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다. 이것은 한일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투명경영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더욱 뜻 깊다. 이밖에도 라이온스 클럽 봉사상 등을 수차례 받았다.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진력한 일생을 인정해 주고 나름대로 여러 사회활동을 인정해 주는 상들이었다. 나로서는 그 상들이 지닌 가치를 논하기에 앞서 내가 한 일, 내 뜻을 알아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일하면서 즐기고, 즐기면서 일하라

일할 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 철저하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일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 젊었을 때 일에만 집중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뒤에 즐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 뒤 즐기기에 인생이 너무 짧다. 그 뒤에 인생을 즐기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 즐기기 위해서도 체력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여행을 가



최상홍 회장이 한일엠이씨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던 수첩들

려고 해도 건강이 따라야만 가능하다. 건강도 따르지 않고 노는 방법도 모르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일하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죽을 각오와 자세로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철저하게 여가 생활을 즐겨야 한다. 일하면서 즐기라는 것이다.

나는 즐기면서 일했다. 다 이뤄 놓고 즐기려고 들면 너무 늦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던 것이 오히려 일하는 동안 집중력을 키우고 내 일에 싫증 내지 않고 40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일에 희생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잘 놀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집중력이 높고 오랫동안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까닭이다.

“약속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좌우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이 말을 한번도 마음 속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시간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도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스케줄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일의 주 업무인 설계 일의 특성상 아무리 노력해도 약속한 날짜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물쭈물하는 직원들이 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약속을 했으면 시간 맞춰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100% 완성된 것을 내놓지 못하면 90% 완성된 결과물이라도 내놓고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의 있는 사람의 태도이다.

또 한가지는 메모 습관을 들 수 있다. 나는 약속이 정해지면 날짜와 시간, 내용을 그 자리에서 수첩에 적는다. 깨알같이 메모가 되어 있는 내 수첩을 보면서 질렸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메모 덕분에 나는 수첩만 펴보면 몇 십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기억해 낼 수 있다.

‘적당’으로는 자부심을 얻을 수 없다.

내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도날이다. 직원이나 후배들을 야단칠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몰아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또 한 가지 별명은 ‘비 사이로 막가’이다. 이것은 호리호리한 내 체구 때문이기도 하지만 빗줄기 사이도 빠져나갈 만큼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여 대비책을 만들고 또 거침없는 행동 탓에 붙여진 별명이다. 주변 사람들이 미리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에서 오는 것 아니냐고 물을 정도이다. 나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려 노력한다. 이것은 완벽주의라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나를 보고 독선적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지나치게 직설적이라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

다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내 잣대로만 사람을 평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지적을 달리 해석한다. 일흔이 넘은 내가 독선적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젊은 후배들이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는 회사 일이든, 모임 일이든, 학회 일이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 그렇기에 제안을 할 수 있고 또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설비가 건축을 보완하는 정도의 학문이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인식 때문인지 발주처에서는 설비에 대해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발주처의 그런 인식을 반영한 탓인지 건축 설계 쪽에서도 설비를 하도급 업종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건축 설계 우선, 설비 나중인 식이다.


그것은 이른 바 계약서 상의 갑과 을의 차이이기도 했다. 언제나 갑은 건축설계 아니면 건설회사이다. 을은 우리 한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요구,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면 직원들은 큰 고민을 하게 된다. 갑의 요구를 들어주면 설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뒤에 문제 제기를 당할 것이 뻔한데, 그렇다고 갑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애써 수주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다. 그럴 때 나는 직원들에게 절대로 갑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말 것을 지시한다. 내게는 한 건의 설계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더 중요하다. 직원들의 판단을 믿어주고 자부심을 살려줘야 기가 산다. 기가 살아있는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나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축설계사무소와 인연을 끊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인색하게, 타인에게는 후덕하게!

‘타인에게 후덕하게 베풀 때에도 티 나지 않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후덕한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 기준은 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내가 사람을 지나치게 가린다거나 나중이라도 내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만 도와 주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는 눈길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내가 도움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나의 도움으로 인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점이다. 그 기준에서는 남녀, 친분의 정도, 학연 등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 남을 도울 때 필요한 것이 더 있다. 첫째, 남을 도와줄 때는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 도움을 주고 난 뒤에는 자신이 도와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야 한다.

둘째, 이왕 도와주려면 일이 되도록 충분히 도와주어야 한다. 겉치레로 시늉만 내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이 또 한가지 있다. 설부른 약속을 하지 말고 약속을 하였으면 식언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영향력,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사심 없이 돕고 함께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여 갖게 되는 덕목이다.

인복을 강조하지만 나처럼 인복이 많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지금의 한일이 있는 것도, 설비업계의 후배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다음호에 계속)